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600여곳서 배출가스 집중단속

경유차 중심 단속...공회전 행위도 대상 단속 불응시 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

이달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 중인 가운데, 환경부와 지자체가 전국 600여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계절관리제 기간 중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차

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및 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하며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의 주요 거점 도로를 중심으로 원격측정기를 활용, 주행 중인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15일 이내 정비나 점검을 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10일간 운행정지 조치되고, 운행정지를

불응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따라야 한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할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차량 소유주 스스로가 본인 차량에서 매연이 발생하지 않는지 엔진 배기구 등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익사자 인양 진행하는 민관군 합동 팀 민관군 수중과학수사 합동훈련이 2일 창원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군-경찰-해양경찰로 이뤄진 합동 팀이 수중 인양 장비를 이용해 익사자 인양을 진행하고 있다

방송연예인 매니저 '표준계약서' 만든다

연예인 매니저·스타일리스트 근로조건 열악

정부가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만들고 업체를 대상으로 노동교육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연예·방송 분야 종사자 권익보호를 위해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와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대상 의무 교육에 노동법 위반사례 등을 포함시키고 근로감독관이 강사로 참여해 교육을 강화한다.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협회·단체와 합동간담회를 열어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유도하는 데도 힘을 합치며, 부처 간 업무협의로도 정례화한다.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연예인 로드매니저와 패션어시스턴트 직종의 열악한 근로여건은 지난 7월 고용부 근로감독에서 드러난 바 있다.
고용부 감독 결과 소속 연예인이 가장 많은

대형 연예기획사 2곳은 로드매니저 40여명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1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연예기획사와 도급 계약을 맺고 있는 패션 스타일리스트 회사 10곳 중 7곳은 소속 어시스턴트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제도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 실시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총 55건이 적발됐다.
양 부처는 방송계에서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자주 지적되는 방송제작 분야에 대해서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계약 체결 및 서면계약서 작성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양정열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문체부와와의 협업을 시작으로 노동권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다양한 분야의 취약계층 노동권익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순창서 만취 승용차 도로 아래로 전도...1명 사망 1명 부상

0.16% 면허취소 수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차량이 전도돼 1명이 숨졌다.
4일 전북소방본부와 순창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2시 50분께 순창군 인계면의

한 고차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도로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이 사고로 동승자 2명 중 1명(63)이 심장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다른 동승자도 머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뉴시스

강진서 아궁이 불씨 추정 화재...40대 화상

3일 오전 10시 10분께 전남 강진군 도암면 한 주택 내부 저온 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에 의해 26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A(41·여)씨가 얼굴과 손에 1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또 창고와 주택 벽 10㎡가량이 타거나 그들

러 소방서 추산 12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 당국은 창고 주변 아궁이에 지핀 불씨가 빨갭으로 옮겨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강진=강영일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